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제3차 충현올림픽

올림픽 체육관에서 개최예정 오늘 제1차 설명회 실시

제3차 충현올림픽이 오는 5월 21일 올림픽 제1체육관(올림픽공원내)에서 개최된다. 충현올림픽 집행위원회는 개최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집행위원회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주제 성구로, 찬송가 401장을 주제찬송으로 정하였

다. 각 팀을 교구별로 확정하였는데, 믿음팀은 4, 8, 9, 16교구, 소망팀은 2, 6, 10, 14교구, 사랑팀은 3, 7, 11, 15교구, 충성팀은 1, 5, 12, 13, 18교구이다. 또한 오늘 오후 5시 30분에는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제1차 설명회를 갖는다. 집행위원회에서는 교역자와 장로 전원이 이 회

의에 참석할 것을 바라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올림픽이, 교제를 통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지체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였다.

제2회 목회자세미나 제1학기 종강식 제2학기는 5월 13일부터

제2회 목회자세미나의 제1학기가 내일(4월 15일) 종강한다.

천 5백여 명의 전국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교회 성장과 갱신”이라는 주제 하에 10주에 걸쳐 열렸던 이 세미나는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목회 비전을 확립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제2학기는 오는 5월 13일에



개강을 할 예정이며, 7월 15일까지 “예배와 설교”를 주제로 진행된다.

일 자 (월요일)	제 1 교 시 오후 2시~3시30분	제 2 교 시 오후 3시 50분~5시 20분
5월 13	예수의 설교 연구 이 중 윤 목사 (충현교회 위임목사)	설교사역과 한글문화
20		정 장 복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수)
27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대구 제일교회 담임목사)
3월 3	강해설교의 방법 설교자의 표현과 전달법	박 영 회 목사 (충신대학교 학장)
10		이 성 현 목사 (대구 서문교회 담임목사)
17		설교와 교회성장 (명성교회 담임목사)
24		김 삼 환 목사 (명성교회 담임목사)
7월 1	예식과 설교 개혁주의의 예배 설교준비의 실제	최 훈 목사 (동도교회 담임목사)
8		이 진 태 교수 (개혁신학연구원 원장)
15		박 종 렬 목사 (충무교회 원로목사)
	예배와 예배음악 이상적인 예배의식	곽 상 수 교수 (인내대학예교수, 연세대학교음악지도자)
		정 규 남 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김창인 원로목사 미주 선교여행차 출국

김창인 원로목사는 미주 선교 여행을 위하여 지난 9일 출국하였다. 모든 성도들은 원로목사가 이 선교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치

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길 바란다.

구리하라 가르요시 일본 선교사 파송예배

우리 교회는 오늘 저녁 7시 찬양예배 시간에 구리하라 가르요시 선교사를 일본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을 갖는다.

현재 일본 동경 주재 대학생선교회 대표이기도 한 구리하라 선교사는 앞으로 우리 교회 선교사로서 일본 청년 복음화에 전력을 다하게 된다.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삼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구리하라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일본 선교의 전진 기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남녀전도회 임역원 19일 특별기도회 가져

남녀전도회 임역원 특별 기도회가 4월 19일 오후 7시에 있다. 이 기도회는 전도위원회가 21일 개최 예정인 전도위원회 헌신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도회로, 임역원 전원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중등1부

21일에 학부모 초청 강좌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위한 부단한 관심과 희생이 있어야 할 필요에 따라 중등1부에서는 어머니들을 위한 특강을 한다. 이 특강은 시대의 흐름과 학생들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바른 신앙 생활을 함께 생각해보고 진정한 청소년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일 시 : 4월 21일(주일)

오후 2시 30분

●장 소 : 소석관 207호

●강 사 : 안경소 목사

중등3부

28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4월을 맞이하여 중등3부는 4월 28일을 총동원 전도 주일로 정하여 부활의 소망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번 주일에는 김광신 장로의 특강이 있고 총동원 전도 주일에 관한 초청장을 배부하면서 학교 친구들을 전도하고 태신자들을 위한 작정 기도를 한다.

●일 시 : 4월 28일(주일)

오전 10시

●장 소 : 소석관 507호

매추라기홀

●강 사 : 김은태 목사

●초청인사 : 전승훈 집사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L 군에게,

세상이 온통 뒤범벅이 되어 질서도 기준도 찾기 어려운 때에 자네 같은 믿음 좋고 잘 닦여진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일세.

주일이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온 종일 예배하고 봉사할 뿐 아니라 헌신적인 활동으로 청년부를 부흥시키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다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청년부 일에 하루 종일 사달리다 못해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을 저녁예배에 참여토록 권고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고맙기까지 했다네. 주일 저녁 예배를 위해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때 집을 향해 돌아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녁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교회의 미래상은 밝다고 생각되네.

성도들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the most important), 가장 긴급한 것(the most urgent), 가장 영광스러운 것(the most glorious)이라고 나는 강단에서 수차 외치지 않았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도 반가웠네.

젊은 시절부터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미래 세계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니, 모쪼록 우리 교회의 청년들은 저녁예배에도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모범적 교회의 모범적 청년회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네.

4. 14

이 중 윤 목사

교역자 청빙

충현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동역하실 신실한 교역자 약간명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1. 모집인원 : 부목사 및 여전도사 약간명
2. 자 격 : 신학원(M.Div)을 졸업한 분
3. 제출서류 : (1) 자필이력서(사진 첨부)
(2) 졸업증명서 (3) 신앙 간증문
(4) 추천서 (5)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제출기한 : (1) 1991년 4월 25일(목)
(2)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문의전화 : (02) 552-8200
5. 제 출 처 : 충현교회 기획조정실

지교회 교역자 청빙

충현교회는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농어촌의 본교회 지교회에서 동역하실 신실한 교역자(남) 약간명을 다음과 같이 청빙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 남자 교역자 약간명
2. 자 격 : 신학원(M.Div)을 졸업한 분
3. 제출서류 : (1) 자필이력서(사진 첨부)
(2) 졸업증명서 (3) 신앙 간증문
(4) 추천서 (5)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이력서 우측 상단에 “지교회”라 명기할 것
4. 제출기한 : (1) 1991년 5월 2일(목)
(2)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문의전화 : (02) 552-8200
5. 제 출 처 : 충현교회 기획조정실



성경 강해

이 중 윤 목사

이 인자는 누구냐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요12:34)

과학이 발달되고 사회가 다원화되었다 해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지거나 나타나시지를 않고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통하여 나타나신다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중보자가 우리들에게 왜 필요하며, 어째서 중보자가 우리들에게 인간의 형상을 쓰시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 잘못된 지식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오신 분이려면 영광스럽게 오셔야 되고 놀라운 칭찬과 대접을 받으며 오셨어야 했습니다. 본문과 그 이전의 말씀들을 참고해보면, 그는 들리셔야 할 땅에서 들려야 되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고난의 주님이야 했으니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이해로는 믿어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하시다가 다시 32절에 인자가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분이요 그 권세는 영원하다고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자(人子)로서의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분명하지 않은 지식은 때때로 엄청난 문제를 가져옵니다. 확실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지식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제는 우리의 중보자를 영광스러운 분으로만 알았지, 고난의 주가 되신다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 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인 지식으로 오해를 하고 많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구약성경을 정확히 읽어 보면, 다니엘 9장 26절에 메시아는 끊어져 없어질 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매를 맞고 치욕을 당하는 분으로 고난 중의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불확실한 지식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인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일곱 대접을 쏟아버리는 무서운 종말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절에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바벨론의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바벨론의 후예가 이라크를 뜻하며, 바벨론에서 일곱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생물이 죽었다고 합니다. 종말론자들은 후세인이 걸프만에 석유를 뿌려 모든 물고기가 죽은 현상을 가지고 둘째 재앙이라 합니다. 또한 이들은 태양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이 나오는데 스커드미사일과 페트리어트미사일을 이용한 공중전을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16절을 보면 “아마겔돈에 사람들이 모여 전쟁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걸프전이 아마겔돈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유엔의 전쟁을 마지막 7 재앙으로 보고 1992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종말의 날짜까지 밝히고 다닙니다. 이렇게 종말론에 관해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들 나름대로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들의 개념 속에 집어 넣고 이해하고 판단하면 세대주의와 같은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2. 인자의 개념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로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여기에서의 “인자”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호칭 가운데 왕도 있고, 메시아도 있고, 어린양이란 말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셨겠습니까. 인자란,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사람 인(人)자에 아들 자(子)자가 붙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완전한 사람이면서 사람만은 아니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 분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우리들의 구주이시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인자의 개념을 요한복음에서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인자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에 관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라는 신학적 배경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대주의란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성경의 연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나 이 세상의 역사가 육천년이고 세칠일이 안식일이니까 마지막 천년이 되면 천년왕국이 와서 그 때에 모든 일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흔히 말하는 천년설입니다. 이 근거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날과 사람의 연대를 죽는 날까지 계산해서 앞으로 6천년이 되면 종말이 온다고 그날이 1992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인간의 기원이 6억년이라고도 하고 2백만년 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 6천년이라고 하면 아마 과학자들은 바웃을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사이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만 나타난 것이지 이것을 성경의 역사라하면 착각입니다. 더욱 확실하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첫째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인자로 탄생하신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서 이전에도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하는데 동참하셨으며 하늘로 올라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요6:62). 이것은 인자의 선재성, 영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시간에 어떤 제약을 받거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이실 때 인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매를 맞거나 메시아가 죽음을 당했다든가라고 하지 않으신 것은 인자란 말 속에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고난의 메시아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명을 주시는 인자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것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우리들에게 줄 양식은 썩어질 양식

이 아니고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렇듯 주님께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오시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안에 연합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넷째로, 인자라는 말 속에는 심판의 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은 심판의 권세가 인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만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을 이해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곤고함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인자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자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입에서 달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함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고 하셨습니다. 또 같은 장 20절을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서 다니신다는 것은 교회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신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목사나 장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자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모두 주님께에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이신데 그 인자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시며, 심판의 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는 고난의 주가 되셨습니다. 고난의 주가 되시기 전에 영원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에 그는 전지전능하신 영원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인자가 우리들 안에 거하시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행복자인 것입니다.

제3차 총현복음심포지움 주제 강연 III

신학교 난립과 목사(후보생)의 자질 문제

박 영 회 박사(총신대학 학장)



1. 커가는 교회, 늘어가는 아픔

초기 한국 교회의 건전하고 영적인 축복과 가치관이 오늘 날에는 오염되고 세속화되어 혼합주의로 빠져들고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목회자들의 질적 저하로 파생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신학 교육에 대한 반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목회자의 자질과 강단 쇠신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바르게 받고, 제대로 쓰는 신앙

첫째, 지나친 자기 교회 제일주의에 빠진 교회는 자기 만족성에 도취되어 폐쇄성을 갖게 되고, 비성경적 목회관에 빠져 성장을 위한 잘못된 교회관을 갖게 된다. 이것이 양적 성장을 가져다줄 지는 모르지만 질적 성장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인간적인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신학없는 목회의 결과를 지적하고 싶다. 신학의 근본 위에 실천적인 것들이 구체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와 신학이 '따로' 존재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3. 목회 현장에서 실종된 신학

한국 교회는 본래의 교회상을 찾기도 전에 6·25와 같은 박해로 신학적 각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타협과 향락적인 인간의 이성과 노력을 강조하는 신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신학적 각성없이 이루어진 오늘

날의 한국 교회는 자기 제일주의를 앞세움으로써 분열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외국의 신학 사상이 정제되지 못한 채 도입됨으로써 교회 분열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것들은 인간들의 지상주의나 교회의 물량주의적 윤리를 낳아 성공적인 양적 성장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하여 대형화된 교회는 이제서야 내실을 기하고자 하지 만, 기초적인 바탕이 없는 신학 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4. 무엇이 교회를 힘있게 하는가

교회의 힘의 척도를 신학적 만족보다 교인의 수나 재정 상태에 기초한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만족에 두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신학의 인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교회가 물질에 대한 신학적 가치를 혼돈해는 안된다. 신앙의 본질마저도 은사나 체험 중심으로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

5. 바른 성장을 위한 바른

신학

첫째,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바른 교회는 신학의 인도가 필요하다. 바른 교회 성장을 위해 신학이 제구실을 하여야 하며 교회에 능동적인 신학을 불어넣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셋째, 불건전한 성령 운동을 지양해야 한다. 남궁혁 박사는 "기독교가 이제야 설교 중심의 종교에서 성령 중심의 종교로 전진하고 제3기를 맞이했다."고 하였다. 오늘날 선교사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이런 성령 중심의 기독교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 교회는 가장 검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신학교의 수익 재산은 교회뿐인데도 교회가 신학교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 결국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교회가 신학생들에게 자금자조를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교회 확장의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안된다.

6. 신학교의 난립 현상

난립된 군소신학교와 학력 인정 신학교에서 한 해에 배출되는 신학생의 수가 6천 5백명에 달한다고 한다.

4년제 신학교를 제외한 교단 신학교나 무인가 신학교들이 무려 2백 70여개나 된다. 이중 학력 인정 신학교는 약 50개로 20 퍼센트 수준에 이른다. 그리고 많은 신학교들이 군소 교단과 관계를 맺고 있다.

(1) 신학교 난립의 원인

첫째, 신학생들의 자질보다는 사명감에 더욱 충실한 한국 교회에, 영적으로 충실한 자격자를 지성적인 자격자보다 더 우선시하는 데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목회 경험과 경건을 실현할 줄 아는 목회자 배양에 힘썼기 때문에 초기의 신학 교육은 경건과 소명이 우선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경건한 목회자들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불가불 신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교단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자기 교단목사 양성의 철학이 작용한 것이다.

둘째, 목회자들의 큰 교회의 시설을 이용한 군소 신학교의 설

립이다. 목회자들이 물질적으로 부담 능력을 갖게 되면서 선교적, 교육적 차원에서 신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런 신학교들은 정상적인 신학 교육보다는 선교, 예술, 어린이, 여목회, 통신 등 다양한 특징을 내세운 신학교들이다. 선교교회를 방자한 학교의 운영도 그 예이다.

셋째, 대학 입시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이 신학 교육이 짧고 목사 안수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군소 신학교로 모여들고 있다.

넷째, 말씀 중심의 목회 원리나 신학 연구보다 부실한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무능을 경험주의로 대치하여 체험과 소명과 성령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분석하여야 할까?

첫째, 인간인지 무인가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교육요건을 갖추어 학생들이 저질의 신학 교육을 받아서는 안된다.

둘째, 군소 신학교의 학생들은 소명은 대단하지만, 자질의 약화를 초래하여 부정적 요소로 지적된다.

셋째, 올바른 준비 없이 신학적 혼란과 영적 빈곤을 초래하고 있는 신학 교육이 제검토 되어야 한다. 교단의 성장을 위한 저질의 신학 교육을 남발하여 참된 기독교의 유산이 본래의 신학 교육에서 벗어나 주지주의나 철학 교육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대학 교육의 범주 내에서 학위를 위주로 하는 신학 교육보다 영적 리더쉽과 체재 교육에 지식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문보다는 지식에서 우리나라는 참된 경건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신학인의 태도이다.



빛을 깊음시다



하 대 선 장로
(선교위원회 위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는 남에게 단돈 백원을 빌려 쓰기도 이것을 갚지 못하면, 마음이 꺼림직하고 심한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러한 물질적인 빚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은혜의 빚을 더 많이 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갚지 못하는 일에는, 죄의식은 커녕 별로 미안하다는 생각조차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 무형적인 빚 가운데는, 부모님의 사랑도 있고, 스승님의 은혜도 있으며, 그밖에도 알게 모르게 받은 수많은 분들의 사랑의 빚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가지 빚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고

귀한 것을 들라면, 뭐니뭐니해도 복음의 빚이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거나 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님이 죄없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공,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엄청난 섭리요 은혜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은혜는 우리가 한 톨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받은 것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믿는 형제들은 모두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릴 필요도 없이 복음의 빚진 자들임에 틀림 없습니다.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는, 1세기 전에 목숨 걸고 이 땅에 상륙하신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피와 함께 뿌려 놓으신 믿음의 씨앗에 의하여,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 성장으로 꽃피게 하더니, 이제는 세계 각국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처지에까지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제 36년의 노예 생활에

서 해방시켜주셨고, 불의의 공산침략으로부터 지켜주셨으며, 오늘날의 교세 성장과 물질의 풍요까지 허락하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신 선교의 사명을 힘을 다해 준행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밀린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는 것뿐입니다. 직접 선교사로 나설 수 있는 분은 선교사로, 간접적으로나마 물질로 선교 사업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물질로, 또한 뒤에서 기도로 선교 사역을 후원하실 분은 기도로, 우리의 처지와 방법은 비록 다를지라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총현교회는 세계를 교구로 삼고 '만민에게 전도'를 표방하면서, 이미 세계 13개국에 2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전파에 앞장서고 있으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등록 교인의 십의 일조를 선교사로 파송하고자 기도하며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총현의 교우 여러분! 이 기도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선교의 역군이 되어 믿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힘찬 전진을 계속합시다.

다음호 세기동은 김차생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충현살롬경로대학 11일에 개강

만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삶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노인상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충현살롬경로대학이 지난 11일에 개강하였다. 살롬경로대학은 6월 20일까지 10주간의 1학기 교육기간을 거쳐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



였다. 학기는 이미 시작하였으나, 보다 많은 노인들의 참여를 위하여 4월 한 달 동안은 계속 등록을 받고 있으므로 노인들의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일 자	1 교시 (예배)	2 교시 (특강)	3 교시 (특활)
4월 11일	개강예배 이종윤학장	반편성, 학생회 임원선출	각부별
18일	송태근 목사	신앙간증-차범근 집사	
25일	자 연 관	찰(자연농원)	
2월 2일	안경소 목사	한방과 건강-이동진 집사	각부별
9일	정기봉 목사	노인과 건강-오경관(이비인후과과장)	
16일	김영구 목사	신앙간증-신소걸 집사	
23일	최인근 목사	노인과 건강-김성운 목사	
30일	자 연 관	찰(설악산 오색온천)	
6월 13일	김해규 목사	현대 노인상-윤용규 목사	각부별
20일	종 강 예 배		

교구 담당목사 비상호출기 휴대기로

우리 교회는 교역자와 성도간의 긴밀한 유대를 위하여 교역자들에게 비상호출기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도록 하였다. 비상호출기를 통하여 교역자들에게 연락할 사항이 있는 성도들은 전자식

교구	담당교역자	번호	교구	담당교역자	번호
1	윤 용 규	202-6167	10	김 은 태	202-6176
2	김 성 윤	202-6168	11		202-6177
3	김 학 진	202-6169	12	신 표 근	202-6178
4	최 인 근	202-6170	13	안 경 소	202-6179
5	김 창 수	202-6171	14	정 기 봉	202-6180
6	김 해 규	202-6172	15	김 양 훈	202-6181
7		202-6173	16	김 찬 곤	202-6182
8	김 영 구	202-6174	17	이 흥 성	202-6183
9	송 태 근	202-6175	18	마 일 수	202-6184

일본어예배부 영성잔치 가져

일본어예배부의 부활절 축하 영성잔치가 지난 9일 오후 7시부터 만나홀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제1부 예배에는 '인간의 조건'이란 주제로 위임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즉 첫째 예수님과 상관 없는 자, 둘째 자기 이름이 모르는 자, 즉 자기 분열중에 걸려 있는 자, 셋째 집에 돌아가서 주님이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가를 전하지 않는 자는 모두 인간의

조건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되 특히 일본인을 위해 기도하고자 당부하였다. 이날 제 서울 일본인 교회 원로장로를 비롯한 많은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2부에는 일본어 비디오를 상영하면서 식사와 친교 시간을 통해 많은 은혜를 나누었다.

다락방장 교육은혜롭게 진행

다락방예배의 부흥을 위하여 이종윤 위임목사가 직접 강의하는 다락방장 교육에 평균 7백5십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이 교육에는 교육 대상인 다락방장과 부지역장은 물론 장로들도 참가하고 있는데, 위임목사가 이 교육에서 성경 본문을 요점, 해석, 적용 중심으로 강의하여, 말씀 중심의 삶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락방장 교육은 수요일 예배와 II부 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실시되는데, 특히 I부 교육을 마친 후에는 참가자들을 위하여 만나홀에서 육의 양식이 제공된다고 한다.

13일에 지교회 교역자 초청 전도위원회 주관

전도위원회는 오는 4월 19일 오후 5시에 지교회 교역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초청 간담회에서는 교역자들로부터 지교회의 현황을 보고받고 지교회의 부흥을 위한 적극적인 전도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애로 사항들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청년1부 특강

청년1부는 오는 4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소석관 514호에서, "청년의 때와 바람직한 결혼관"을 주제로 김찬곤 목사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91년도 부부교양대학 현재 접수중

우리 교회 부설 충현부부교양대학은 금년에도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충현부부교양강좌를 개설한다.

- 대 상 : 부부 동반(타교회 성도도 환영)
- 장 소 : 충현교회 갈릴리홀
- 등 록 비 : 5천원(간식 제공)
- 접수기간 : 4월 7일 ~ 4월 23일
- 접 수 처 : 사무국 행정과(소석관 1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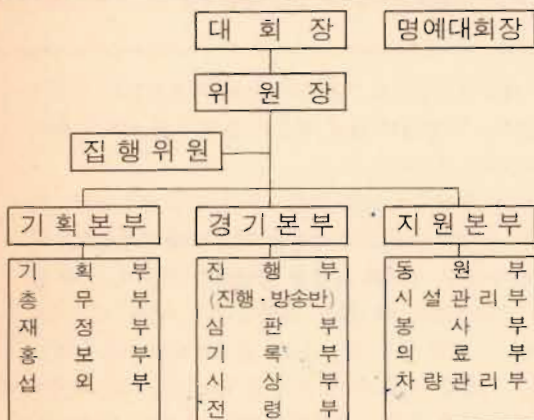
일 자	주 제	강 사
4. 23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가정	이종윤 목사(충현교회)
4. 30	그리스도인 가정의 스트레스	최영민 교수(서울 백병원)
5. 7	그리스도인과 성	이춘실 교수(장신대학)
5. 14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	이수영 교수(장신대학)

충현디아스포라 운동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충현 교우들의 신앙적 성장을 도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유대감을 갖기 위하여 "충현 디아스포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대 상
- 1. 충현교회에서 성장한 해외 거주자 및 그 가족
- 2. 충현교회와 계속적인 유대를 도모하기를 희망하는 해외 교회 및 성도
- 3. 해외에 있는 충현교회의 자매 교회
- 주소접수 : 사무국(4월 30일까지)

제3차 충현올림픽 집행위원회 조직



- 대 회 장 : 이종윤, 명예대회장 : 김창인
- 위 원 장 : 우기전, 지 도 : 송태근
- 집 행 위 원 : 노광현, 박치민, 박승준, 정광호, 강은원, 노문환
- 기 획 본 부
- 본부장 : 박승준, 부분부장 : 노문환
- 기획부 : 부장/노문환, 차장/황의만
- 부원/이상석, 김광호, 전승훈
- 총무부 : 부장/박상준, 차장/원용철
- 부원/이철호, 이대길, 한천길
- 재정부 : 부장/박철호, 차장/김광남
- 부원/최정남, 김영혜(마3), 최현숙(루3)
- 설외부 : 부장/김현식, 차장/안석현

- 부원/박문태
- 홍보부 : 부장/이승철, 차장/박철구
- 부원/박은경, 이종희, 이동우, 서해숙, 임영호

- 경 기 본 부
- 본부장 : 노광현, 부분부장 : 강은원
- 진행부 : 부장/황의만, 차장/전승훈
- 부원/권명옥, 김영수, 조용준, 김중선, 정상수, 김광호, 박종진, 강경의, 양병진, 신종명, 이광국, 김정필, 윤해균, 최은희(청2), 최낙은(청1), 김상봉(청1), 김동석(청1), 임영호(대), 김요섭(대), 서일우(대)
- 방송반 : 반장/박성명
- 부원/이대길, 유인순, 홍수정
- 심판부 : 부장/강은원, 차장/이종섭
- 부원/나희주, 최윤덕, 정홍식, 안동현, 김단용, 김정표, 김정은, 박승길, 이인영, 엄복섭, 정창길, 최형열, 차경자, 양승길, 박동춘, 문영규, 정병국(청3), 이준경(청3), 한석연(청3)
- 기록부 : 부장/정정주, 차장/홍성욱
- 부원/김미정(청1), 권세숙(청3), 송윤경(대)
- 시상부 : 부장/김재명, 차장/박영엽
- 부원/강봉수, 윤봉준, 이요섭, 전명옥, 엄숙현, 박효지, 김순실, 이중영

- 전령부 : 부장/김구형, 차장/박찬섭
- 부원/송원석(청2), 홍인석(청2), 이재호(청2)

- 지 원 본 부
- 본부장 : 박치민, 부분부장 : 정광호
- 동원부 : 부장/손동운, 차장/박영식
- 부원/오정현, 김원선, 노광현, 최상규, 김광남, 강순용, 이 훈, 김천재, 박영식, 이병학, 김은호, 김재명, 정광호, 마성락, 박관영, 최무길, 박치민, 박용삼(각교구 지도교역자, 18개 교구장)
- 시설관리부 : 부장/오정수, 차장/김 신
- 부원/고병국, 윤상언, 하상구, 김진호, 김용래
- 봉사부 : 부장/김여순, 차장/이하영
- 부원/채수경, 김형선, 이동명, 이장하, 김기철, 장남희, 최정희, 김준지, 김용순
- 의료부 : 부장/손 철, 차장/박종학
- 부원/오현규, 옥일식, 채영철, 하두숙, 홍이표, 임명선, 이동진, 길재호, 정옥희, 백순옥, 김양자
- 차량부 : 부장/김영길, 차장/허명호
- 부원/김규중, 추병창, 안노수, 김동삼, 최진성, 문광석, 차기풍, 박창식, 장영환, 이성실, 김봉중, 유근중, 유영식, 손기현, 이용렬, 김영연, 김영길, 한길동(별도 임명식은 갖지 않음)